

모범이발관 내달부터 생긴다

88경기장주변 관광지등에... 水道料감면 혜택

6大도시 35%가 퇴폐영업

모범이발관이 생긴다. 보사부는 7월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를 없애고 건전한 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유흥업종(기장·관광지·학교주변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모범이발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모범이발관 지정요건은 △ 퇴폐조장시설(카탁이, 커튼, 조명조절장치 등)이 완전하게 거론 업소(출몰한 위생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된 업소 △인체의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로 보사부와 시도 및 대한이용사회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보사부는 이들 모범이발관에 대해서는 위생감시 면제 수도료감면 등 특전을 주기로 했다. 수도료는 서울의 경우 기본량(2개월에 60일방) 이하를 쓰는 업소는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기본량 초과사용업소는 기본요금만 징수한다.

시도지역 업소에 대해서는 시도실정에 맞게 조정감면할 방침이다.

모범이발관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일정한 규격의 모범 업소표지판을 붙이고 지정 업소가 퇴폐영업을 하면 환경위생법이 정하는 최고액의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것.

보사부가 지난 2월 4일부터 9일간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등 6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퇴폐업태업소 특별단속결과 이발관 2백58개소 중 90개업소(35%)가 퇴폐조장시설을 갖추어 놓거나 유흥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89.3.17

향락문화 추방을 위해 14일 밤 9시 종로, 서울역 등 5군데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인 YMCA 시민운동자 구본부는 앞으로 향락광고 제공 상품의 불매운동 등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추방운동을 펼 작정이다.

향락산업이 GNP 5%

40여만개 업소에 접대부 1백만명

기독교청년회 추방 캠페인 · 정부대책 건의키로

산업화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팽창해 온 향락산업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작년부터 향락문화 추방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열어 왔던 서울기독교청년회(YMCA)는 14일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서울 YMCA 회원 결의대회'를 갖고 새로운 시민문화건설을 통한 향락문화추방을 다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회장 이윤자)도 15일 오전 '퇴폐행위 감시인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생활주변의 퇴폐를 어머니들의 힘으로 추방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기독교청년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지역 향락문화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주택가에 침투한 향락문화 현상을 고발했다.

YMC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년 2월 현재 봉천동 4.6.7.1

0.11동의 접객업소 실태는 카페 1백17개, 룸살롱 20개, 스탠드바 14개, 인삼찜집 7개, 이발소 39개, 여관·호텔 71개, 여인숙 17개 등으로 향락업소의 숫자가 총 11만4천4백28명의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지역에 상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자 2백명을 대상으로 한 '봉천동지역 향락문화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는 향락문화의 범람현황을 생생하게 알려준다.

연령별로는 20대(41.5%) 30~40대(43%)가 50대(15.5%)보다 많고 기혼자(57.5%)가 미혼(42%)보다 많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51.5%가 카페·룸카페를 월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스탠드바는 36.5%가, 나이트클럽은 19.5%가, 룸살롱은 18.5%가, 여관은 17.5%가 월1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49%인 98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적 서비스를 경험한 업소는 이발소가 2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숙박업소(10.2%) 룸살롱(8.2%) 스탠드바(8.2%) 카페·룸카페(7.1%) 순으로 나타나 퇴폐이발소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서울기독교청년회는 향락산업이 매출액 4조원, GNP의 5%를 넘어섰고, 40여만개의 업소, 1백만을 넘는 여성접대부 등으로 전국민을 향락풍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락문화 전달매체를 감시하고 향락광고제공 상품의 불매운동 △향락문화추방 시민운동지원 △향락산업 퇴치를 위한 대정부 종합 정책건의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관, 술집 등 서울, 지난해

89.2.26

지난 한해 동안 서울시내에 유흥·접객업소가 1만여개소 가까이 늘어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관·술집·사우나·유기장 등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는 모두 12만8천7백86개로 87년말의 11만9천2백1개보다 9천5백85개가 늘어났는데, 이는 87년 증가수 7천7백54개보다 25%나 많은 것이다.

지난해 이들 업소수 증가를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5천1백4개 △이·미용업소 9백99개 △유기장 5백65개 △다방 2백68개 △목욕탕 1백22개 △무도유흥업소 8개 등이다.

또 이들 업종을 보조하는 관